

“사회와 단절”... 광주 ‘은둔형 외톨이’ 1만2000명

광주시 실태조사 결과

‘정유정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화 은둔 생활 계기 ‘취업 실패’ 27.8% 10명 중 4명 ‘가족과 대화 안한다’ 정신적 장애... 스마트폰·PC 의존 ‘세부적 특성 분석... 촘촘 지원을’

광주지역 ‘은둔형 외톨이’ 상당수가 가족과 대화가 단절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래 여성을 살해·유기한 ‘정유정 사건’ 이후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센터)에 따르면,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는 1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 작용해 일정 기간(6개월)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재까지 곤란한 사람이다.

센터가 은둔형 외톨이 237명을 대상으로 한 ‘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에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절반 가량이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은둔 생활을 하는 응답자 175명 중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가 42.9%를 차지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다’ 33.1%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안부를 묻는다’ 18.9%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고민을 함께 이야기한다’ 5.1% 순이었다.

과거 은둔 생활을 했던 응답자 62명 중 46.8%가 ‘가족 누구와도 소통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어머니와 잘 지냈다’ 25.8% △‘형제와 잘 지냈다’ 22.6% △‘아버지와 잘 지냈다’ 4.8%였다. 과거·현재 은둔 생활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이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된 셈이다.

은둔 생활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이 31.2%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3년

미만 24.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1.1% △3년 이상 5년 미만 13.1% 순이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7.2%, △10년 이상 2.5%에 달했다.

은둔형 외톨이가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주된 계기는 ‘취업에 실패해서’가 27.8%로 큰 수치를 차지했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26.6% △‘대인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17.3% △‘학업 중단이나 진학 실패’ 13.5% △‘실직’ 10.1% 순이다.

일상생활은 스마트폰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은둔형 외톨이가 평상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스마트폰 사용’이 53.2%로 가장 높았고, △‘PC 사용·인터넷 게임’ 50.2% △‘잠·수면’ 41.8% △‘TV보기’ 16.9% △‘아무것도 안하기’ 12.7% △‘음악듣기’ 11% △‘책읽기’ 6.3% △‘운동’ 3.4% △‘기타’ 4.6% 순이다. 특히 은둔 생활이 긴 사람일수록 PC 사용·인터넷 게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백희정 광주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은둔형 외톨이는 진학, 취업, 대인 관계 어려움, 학교폭력, 취업 부담감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겨난다”며 “은둔형 외톨이의 명확한 정의가 없고 개별적 특성이 알려지지 않아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원 센터가 다른 지역에도 많이 만들어져서 정의부터 세부적인 특성 등을 알리고 촘촘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오는 7월 15일까지 제2차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 은둔 경험이 있는 이들 중 총 600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광주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해 7월부터 시행했다. ▶ 관련기사 3면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지산동-조선대 우회도로 개통 6일 광주 동구 지산동에서 조선대 교내를 관통하는 왕복 2차선 우회도로가 준공됐다. 오는 9일 개통식을 갖는 우회도로는 총 연장 545m 폭 10m 규모이며 지산동 차량 정체 해소 및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등을 위해 개설됐다. 나건호 기자

U-20 한국 축구, 9일 이탈리아와 결승 다툼

2회 연속 4강 진출 쾌거 연장서 나이지리아에 승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2회 연속으로 4강에 진출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9일 이탈리아와 결승 티켓을 놓고 격돌한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5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나이지리아와의 2023 국제축구연맹(FIFA) 아르헨티나 U-20 월드컵 8강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최석현(단국대)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한국은 1983년 멕시코 대회

(4강), 2019년 폴란드 대회(준우승)에 이어 U-20 월드컵 통산 세 번째이자 2회 연속 4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오는 9일 오전 6시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이탈리아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한국은 이번 대회 4강에 오른 팀 가운데 단 1패도 없는 유일한 팀이다.

한국은 예선부터 ‘선 수비 후 역습’ 전략으로 승승장구했다. 조별리그 1차전서 프랑스를 2-1로 꺾으며 이번을 연출했고, 2차전과 3차전서 각각 온두라스(2-2 무)와 감비아(0-0 무)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1승2무(승점 5),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16강전에선 ‘남미 강호’ 에콰도르를 3-2로 물리쳤고 8강전에선 ‘아프리카 북방’ 나이지리아 마저 격침시켰다.

4강 상대인 이탈리아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은 없지만 2017년 대회 3위, 2019년 대회 4위에 올라 3회 연속 4강에 진출한 유럽 강호다.

하지만 한국은 이 연령대 역대 전적에서 2전 2승으로 이탈리아에 강했다. 1981년 호주에서 열린 U-20 월드컵 본선에서 4-1로 승리했고, 2000년 1월 신년대회에서 1-0으로 이겼다. 한국이 이번 이탈리아전도 승리해 2회 연속 결승 무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념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화순군·담양군에 걸쳐있는 국립공원 제21호 무등산은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재인증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일보사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념해 오는 6월 17일 ‘제17회 무등산등반대회’를 개최합니다. 중심사지구~중머리재~서석대 구간 6km에서 펼쳐지는 이번 산행은 8700만년 대자연의 신비를 오롯이 감상하고 수려한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뜻 깊은 등반이 될 것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하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에서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실 시·도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6월 17일(토) 오전 8시30분
- **장 소** - 문빈정사앞 광장(집결)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5일(월)~ 6월 9일(금)
- **인 원** - 300명 선착순 접수
- **1365 자원봉사포털 이용 자원봉사 가능**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 **참여방법** - 홈페이지(www.jnilbo.com) 접속,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문 의** - 062) 519-0730-1
- **주최주관** - 전남일보·전일엔컬스
- **후 원** - 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 화순군·담양군·전남대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